

제임스 사이어 저 | 윤중석 역 | IVP

지식건축법: 기독교성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회장)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지성의 위치는 무엇이며, 기독교 지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큰 인기는 없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기독교성에 관해서는 마크 놀, 오스 기니스, 데이비드 길, 브라이언 월시, 리처드 미들턴, 조시 마스텐 등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 책은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토대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기존의 엄격한 지적인 논의로 점철된 이전의 글과는 달리, 다소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자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그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 지성인이 되었으며, 진정한 '기독교 지성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독교 지성인의 모델들을 통해 잔잔한 내러티브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사랑하는 사람, 지성인

지성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학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비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이어에 따르면, "지성인이라 사고를 사랑하는 사람, 즉 헌신적으로 사고를 다듬고, 사고를 개발하고, 사고를 비판하고, 사고를 뒤집고, 사고의 함축된 의미를 보고, 사고를 쌓아올리고, 사고를 배열하고, 새 사고가 튀어나와 낡은 사고의 자리배열이 달라지는 듯한 때 잠잠히 앉았었고, 사고를 가지고 놀고, 관련 단어로 말놀음하고, 사고를 웃고, 사고의 충동을 지켜보고, 조각들을 주위 모으고, 다시 시작하고, 사고를 판단하고, 사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사고를 바꾸고, 사고를 다른 사고의 체계들의 대응물과 접촉시키고, 사고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춤추되 또한 일상생활에 소용이 되도록 사고를 맞추는 사람이다."(pp.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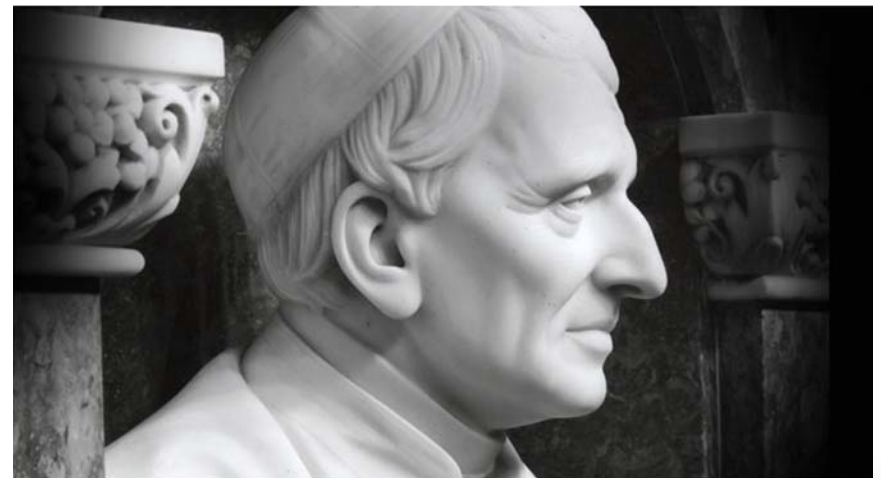
그러면 기독교 지성인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기독교 지성인도 지성인으로서 일반 지성인의 이러한 특징들을 당연히 공유한다. 기독교 지성인이 일반 지성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적 활동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그 목적은 다른 아닌 지성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바울의 말씀은 기독교 지성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지성인의 모델, 뉴먼

사이어가 보기에, 이러한 기독교 지성인의 대표적인 모델은 뉴먼(John Henry Newman)이다. 뉴먼은 처음에는 복음주의자로 교육받았으며,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동안 1824년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목사가 되어 헌신했다. 그는 이른바 '옥스퍼드 운동'의 핵심인물로 활동하다가 1845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1879년에 추기경이 되었다.

기독교 지성인의 모델로서 뉴먼의 모습은 「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1852년부터 아일랜드에 별도의 가톨릭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한 것을 모은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지식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신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자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념, 즉 지성의 함양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지성의 함양에 있어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학의 이념」에 나타난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지식은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All knowledge forms one whole or circle)와 "종교적 진리는 총체적 지식의 일부이면서 조건이다."(Religious truth is not only a portion, but a condition of general knowledge)라는 두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 뉴먼은 그리스도인의 지성을 "지성의 완성", "지고한 지성", "지성의 철학적 습성" 등으로 불렀다. "지성의 완성





은 역사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예언에 가깝고,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심령의 감찰에 가깝고, 소소함과 편견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초자연적 순결에 가깝고, 지성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 없으므로 믿음의 안식에 가깝다. 지성의 완성은 천상의 목상에 가까운 멋과 조화가 있으며, 만물의 영원한 질서 및 천체의 음악과 아주 친밀하다.”(The Idea of a University, p.101)

기독교지성인의 진리 접근법

사이어가 뉴먼을 기독교 지성인의 모델로 본 것은, 그의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과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거룩함을 향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 지성인의 원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로고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인간이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거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본받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을 좇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을 좇는 삶은 선한 것—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덕과 기쁨이 되는 것(빌 4:8)—을 늘 염두에 두고 사모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죽이고 죄의 행실을 버리는 것이다.

거룩함을 향한 열정은 진리를 알려는 열정뿐 아니라 진리를 향하려는 열정을 낳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전인, 즉 앎과 행함, 믿음과 순종, 신앙과 실천, 이론과 실제 사이의 통합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성은 단순히 두뇌나 인간의 지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지성은 위험하고, 교만하게 만든다(고전 8:1). 올바른 지성은 감정, 태도, 성향, 의지, 도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성이야말로 온전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 지성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학벌이 높거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과 달란트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지성인 삶이 정작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서 보면 헬라인처럼 지식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처럼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반지성주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하

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후 10:4-5). 후자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성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렇듯,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하는 삶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확장된 지성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누가 기독교 지성인인가

이 책은 자신이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지성인이지만 기독교 지성인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기독교 지성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기독교 지성인에게는 그 이름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주며, 기독교와 지성을 분리하거나 지성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독교 지성이 왜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소 까다롭고 논의가 요구되는 뉴먼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책은 무난하고 비교적 잘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기독교 지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유재봉 영국 런던대학교(Institute of Education)에서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겸 교육연구소장으로 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